



무등산 전망대 경관.



기아챔피언스필드 경관.

광주광역시 제공

‘드론 촬영’ 광주 도시경관 사진 시민·관광객에 공개

‘기록 누리집’ 현행화 작업 완료
무등산·ACC·야구경기장 등 포함
‘광주 방문의 해’ 관광자료 활용
도시이미지 향상·공공소통 도움

광주광역시가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담아낸 생생한 사진물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공개한다. 광주광역시는 도시의 변화와 기억을 사진물로 기록해 공유하는 ‘광주시 도시경관기록 누리집’ 현행화 작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현행화 작업은 도시의 변화된 모습과 주요 경관 정보를 정밀하게 기록·관리해 관광,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시민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광주시 도시경관기록 누리집’을 개설해 광주의 다양한 도시경관 이미지를 수집, 공개했다. 이번 현행화 작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 도시경관의 모습과 함께 2020년 도시경관의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작업에는 광주시 직원들이

직접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활용해 보다 생생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구축했다. 예산 절감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시간 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드론 촬영 대상은 무등산 전망대, 지산유원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사직타워 전망대, 풍암호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 대표 경관지 △도심 고층건축물 △역사문화자산 △도시공원·녹지 등으로 변화가 크거나 관광자원 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촬영 결과물은 도시경관기록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원하는 각도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360VR(Virtual Reality)로도 제공한다.

특히 야간경관 등 광주의 매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시각 정보도 추가돼 시민들은 물론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둘러볼 수 있는 장소를 보다 손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번 경관기록 자료를 ‘2025 광주방문의 해’의 관광 기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만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도시이미지 향상과 공

공 소통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드론 촬영을 정례화하고 변화가 큰 지역은 수시로 자료를 갱신하는 등 도시경관 기록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직원들이 직접 드론으로 구축한 자료를 통해 생생하고 신뢰도 높은 도시경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시경관기록 플랫폼이 관광, 정책, 시민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광주시, 빛고을 책마당 북페어 참여서점 모집

25일까지 40곳 이메일 접수

광주광역시는 오는 25일까지 ‘2025 빛고을 책마당’ 북페어에 참여할 지역서점을 모집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북페어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역서점 활성화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는 9월 6~7일, 10월 11~12일 두차례 광주시청에서 열린다.

광주시 지역서점 인증 서점과 독립서점 등 총 40개 팀이 참여해 도서와 굿즈를 판매하고 자체 기획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부스는 오후 12~8시까지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지역서점이 기획한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광주시는 공모를 통해 북페어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서점을 모집한다.

△지역 내 위치 여부 △북페어 부스 운영 계획(도서 할인 여부·자체 프로그램·큐레이션 주제 등)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총 40개 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는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이메일((tumbler79@korea.kr)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



시 문화유산자원과(062-613-2492)로 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오는 31일 개별 통지된다. 선정된 팀은 운영비 20만원과 기본 부스(테이블 1개·의자 2개·테이블보 포함)를 지원받는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이번 북페어는 지역서점이 단순한 유통공간을 넘어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거점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지역 인증서점과 독립서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전남도, 여름철 농업용수 확보·공급 총력

농업용 저수지 3207곳 점검
맞춤형 용수 공급대책 추진

전라남도는 최근 이어진 폭염과 짧은 장마로 강수량 부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 3207개소를 대상으로 농업용수 확보와 저수율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저수율 실태, 취수시설 작동 상태, 누수 여부 및 대체 수원 확보 현황 농업용수 공급과 직결되는 주요 항목

을 전반적으로 점검, 용수 부족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도는 총 3207개소의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수혜면적 대비 저수용량이 부족하거나 매년 농업용수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중점관리저수지 46개소에 대해서는 저수율 5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인근 관정, 양수장 등 비상급수 장비와 인력을 우선 투입해 물체우기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올여름 폭염 장기화에 대비

해 기상 정보와 연계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또한 관정 개발, 간이양수장과 송수관로, 둠병 설치 등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용수공급대책 수립 등 예산 및 행정력 집중을 통해 농업용수 대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에 만전을 기해 도민이 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시민의숲 물놀이장서 시원한 여름 나세요”

19일부터 8월17일까지 운영
장애아동 전용 체험일 마련

광주광역시는 오는 19일~8월17일까지 총 30일간 북구 오룡동에 위치한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을 무료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의 숲 물놀이장은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도심형 여름 피서지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과 청소를 위해 휴장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또 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장애인 물놀이 체험활동의 날’을 오는 21일과 8월4일 이틀간 운영한다. 비장애인의 출입을 제한해 보다 안전하고 여유 있는 체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매일 수돗물을 교체하고 15일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 관리도 철

저하게 진행 중이다.

물놀이장은 약 1000㎡ 규모에 평균 수심은 20cm이다.

돌고래·잠수함 형태의 대형 놀이기구와 125m 길이의 계류형 물놀이 시설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피서지로 제격이다.

문의는 광주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062-613-6475, 6467)로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정상아 기자

전남도-소방본부, 축사 화재 예방 협업체계 구축

예방 장치·시설 개선 등 지원

전라남도가 축사 화재 제로화를 위해 전남소방본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예방 활동에 나선다.

전남도는 전기 안전장치인 아크차단기 교체, 화재관리 시스템 설치 등 예방장비

를 보급하고, 녹색축산육성기금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노후 축사 개선을 유도한다. 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안전관리 홍보를 통해 농가의 자율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축사 화재 시 재산 피해 확

대의 구조적 원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인·허가 단계부터 축사 시설물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축사 동간 이격거리 확보, 살수설비와 아크차단기 설치 권장, 소방출동로 확보(진입로 확장·개선) 등 구조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함께 축산농가의 촘촘한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해 축사 화재 주요 원인인 배전반 내 먼지제거(트래킹 클리너 활용),

축사화재 안전요령 동영상 제작,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방지를 위한 비대면(영상통화) 화재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축사화재 저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같은 협업을 통해 축사 화재 예방장비 보급과 노후 축사 개선 등 하드웨어적 지원과 안전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 같은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종합 추진해 축사 화재 발생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올해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에 총 6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100개소에 아크차단기, 화재관리시스템 등 설치 비용을 농가당 6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아크차단기는 전선 연결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아크(스파크)를 감지해 전기회로 등을 자동 차단, 화재를 예방하는 장치다. 화재관리시스템은 낙뢰, 과부하, 누전, 정전 등 화재 발생 가능 요인과 화재 감지 내역을 축산농가 스마트폰으로 알리는 장치다.

오지현 기자